

# 2019년 사목교서

**‘새로운 시대, 새로운 복음화’**

-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서울대학교 사목국

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**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.” (마르 16,15)**

1. 2012년 ‘신앙의 해’ 선포를 기점으로 복음화를 위한 다섯 가지 사목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천  
: ‘말씀’, ‘기도’, ‘교회 가르침’, ‘미사’, ‘사랑 실천’
2. 이를 바탕으로 2019년은 ‘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’ 건설에 초점

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1. 교회의 사명

- (1) “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.”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
- (2)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쳐 오늘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사명
- (3)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.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2. 하느님 사랑의 체험을 전하는 도구

- (1) '복음(기쁜 소식)'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해야
- (2)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곧바로 전파자
- (3) 복음 선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, 자기 체험을 드러내는 선물이요, 아름다운 몸짓
- (4) “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!”(로마 10,15)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3. 복음화되어야 하고, 복음화해야 하는 가정 공동체

(1) 가정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전하기 위한  
교회의 기초 공동체

(2) 교황 바오로 6세: “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 
전달되는 곳”이요 “복음이 빛나는 곳”이라고 말씀

(3) 교황 프란치스코: “복음의 메시지가 가정 안에서,  
그리고 가정들 사이에서 언제나 울려 퍼져야”  
한다고 말씀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- (4)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, 키우며, 전하는 못자리가 되어야
- (5) 가정은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가운데 복음화되고,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복음화하는 기초 공동체
- (6) 가정 공동체가 새로운 열정과 방법으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자 함
  - ① ‘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’
  - ② ‘신앙을 이어주는 자리’
  - ③ ‘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’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4. 가정은 '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학교'

- (1) 가정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키울 수 있는 사랑의 학교
- (2)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
- (3) 함께 기도하고,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, 성찬의 친교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고 키우는 가정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- (4) 부부는 “상대방의 성숙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”가 되어야
- (5)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가정의 중심에
- (6) 서로 다른 성(性)을 지닌 부부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의 전달자

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- (7)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요, 환대하는 자리
- (8) 부모는 자녀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여정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
- (9)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, 그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야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5. 가정은 '신앙을 이어주는 자리'

- (1) 부부는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'자기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도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'
- (2) 부모는 “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첫 스승”
- (3) 부모가 먼저 하느님을 믿고, 하느님을 찾고,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껴야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- (4)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 
잠시 교회를 떠난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**
- (5) 조부모 역시 신앙을 후손들에게 선물하려고 애써야**
- (6) 신앙을 전하는 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입니다.**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6. 가정은 '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'

- (1) 교황 프란치스코: 그리스도인 가정이 “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”한다고 말씀
- (2) 자기 가정의 안위와 행복 추구를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복음화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

#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

## 7. 교구 신자들에게의 당부

- (1) 가정생활 안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기억해야
- (2) 학교, 직장, 각종 모임 등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
- (3) 이를 통해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가정과 교회, 그리고 세상 안에서 '그리스도인 답게' 살아가야